

무협지적 패러디 통한 '세상읽기'

유하詩集 「무림일기」

유하의 첫 시집 「무림일기」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혁명이라는 역사적 격랑을 겪지 않고 자라난 세대의 목소리를 매우 특이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유하의 시가 특이하다는 것은 그가 속한 세대적 특성과 긴밀하게 접맥되어 있다. 이 세대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나무 등걸을 벗겨먹던 절대적 기아 대신 자본주의의 고속화가 안겨준 물질적 풍요와 그 풍요가 배설한 대중문화(혹은 소비문화)의 세례를 듬뿍 받고 자라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적 양식이란 '일제 만화영화'이거나 '중원무림'의 '고수'들이 활약하는 무협지이거나 '마분지 소설'과도 같은 포르노영화 따위인데, 유하는 바로 자본주의의 상업적 속성이 낳은 이 '문화적 사생아'를 통하여 '세상읽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를 특이한 위치에 자리잡게 한다. 즉, 시인은 그러한 문화적 양식이 싹트게 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시적 대응 보다는, 오히려 시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혹은 접할 수밖에 없는) 소비문화의 틀로써 그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테면 '영화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일련의 시들에서 시인은 영화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을 절묘하게 몽타지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한결같이 "거대한 악어 가죽처럼 빛나는 전경들의 방패술 / ... / 악어들이 다스려온 대한민국" 사회상을 담고 있다. 그 사회상을 들여다 보면, "포르노엔 지배자들이 살포하는 / 포르말린 냄새가 배여" 있기도 하고, 러시아의 "오넷사 계단 위의 군중 학살"과 "같은 학살의 경험이 있는 / 우리나라" 상황과도 맞부딪치게 된다. 이 맞부딪

침을 연결하는 고리는 풍자의 힘이다.

이 풍자의 힘은 유하가 이번 시집 「무림일기」를 통하여 열어제긴 우리 시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이 보다 든든한 현실성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돈 없어 노는 놈들한테 / 돈 좀 놀으라는 종이를 준다"나 "박통시 절 박통터지게 재미있던 프로레스링"과 같은 언어적 치기에서 벗어나 "왜 알아서 일어나진 못할까"라는 질문으로 하여금 우리를 끊임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날카로운 풍자의 칼을 더 다듬어야 하리라. 적어도 "國家不幸 詩人幸인 나라"에서 그가 몸 부리고 사는 동안

남승호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1300-9·기자

의료기술의 윤리적 문제점 분석

T. 사론 외 「生醫倫理學이란?」

'生醫倫理學'(bioethics)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 좀 낯설다. 생명(bio)윤리학과 의료(medical)윤리학을 포괄하는 생의(biomedical)윤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1970년 이후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의 영역에서 일어난 기술상의 진보로 인해 생겨났다.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더우기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해가는 사회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노인 소외 등 갖가지 새로운 윤리적 난제들을 이제 더이상 전통적인 절대적 도덕률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생의윤리학은 고심하게 되었다. 과학이나 의학과 연관지어서 「생의 윤리학」(T.사론, J. 디지아모코 / 황경식, 김상득 / 서광사)은 생명공학, 심리학, 생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유전학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제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결을 위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또한 생의윤리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의학적 문제와 윤리적인 딜레마를 개괄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생의윤리학의 몇가지 문제들을 선별한다. 특히 임신중절, 죽음의 정의, 안락사, 선천성 기형, 유전공학, 신체기관의 이식, 행태수정, 환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저자는 기술에서 파생되는 의학적인 문제들이 지닌 도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몇가지 윤리개념들을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우선 생의윤리학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고려사항은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있다. 인간존엄성의 문제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첨여되어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양식과 죽음의 방식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학, 과학, 기술 등의 발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휴머니즘이라고 불리워지는 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실존의 존엄성은 그 자체내에서, 즉 그 자신의 의미에서 생겨나며, 나아가 인간 존엄성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그 목적과 정당화의 근거로 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중효과'의 원리이다. 의료행위에서 자주 제기되는 곤란한 상황 중의 하나는 계획한 행위가 두 가지 효과, 즉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쁜 효과를 낳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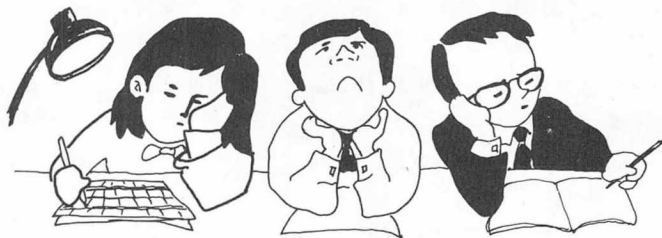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자는 '전체성의 원리'와 '정의' 문제를 제시한다. 생의윤리학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전통적인 요소인 전체성의 원리란, 그 어떠한 부분도 오직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원리는 주로 절단 수술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기관을 제거할 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윤리학에 있어서의 다른 관심사들을 진술해 주는 간략한 방식이다.

도덕철학의 응용으로서의 생의 윤리학은 결국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생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신유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고등학교 교사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춘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3월 17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3월 17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사를 돕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사를 보배로
케어아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사랑, 그 슬프고 맹목적인 힘

이문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신의 작가, 인간의 작가, 그리고 엄청난 힘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李文烈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 주는 작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여타의 그의 작품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처럼 예외없이 198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문단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가라는 이점에서인지, 아니면 그의 다른 작품 「사람의 아들」 「英雄時代」 등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이 작품은 '이문열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유려하고도 스케일이 큰 문체를 구사해 나가는 이문열 특유의 예리한 시각을 발견하게 되지만 스토리는 여느 지리한 애정소설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든다.

작가 자신도 "손가락도 여럿이다 보면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작품도 쓰다 보면 주관적인 민족도에서 충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 작품이다"라고 작품 후기에 덧붙임을 잊지 않았다.

이 작품은 또한 영화화되어 영상언어로 독자 앞에 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의 다른 작품 「사람의 아들」이나 「구로 아리랑」 등이 영화화되었을 때보다는 많은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점은 이문열의 독자들이 소설에서 얻지 못한 기대치를 영화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바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어떤 영화평론가는 소설보다는 영화가 훨씬 나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소설에서의 미흡한 면을 영상언어로 훌륭하게 처리하였다고.

그러나 이와 같이 한 작가가 전혀 다른 문학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역량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젊은이들의 슬픈 사랑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문열의 '손'을 거침으로써 작중인물 임형빈의 사랑은 더욱 절실하게 독자들과의 내면에 體化되며, 이문열 개인에 대한 '신선함'마저 느끼게 한다.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구에서 인용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독자들과의 호기심을 충분히 끌고도 남음이 있었으리라.

1970년대 - 막걸리와 생맥주, 젓가락장단과 통기타 반주, 고전적인 성도덕과 서구적인 성개방 사이의 혼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의 시대 -, 절연의 땅, 기회의 땅 아메리카를 동경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임형빈과 서연주의 사랑을 읽고 있노라면, 두 사람의 '비정상적'이라 할 정도의 끈질긴 애정행각이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독자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테의 연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식과 일상을 순간간에 뛰어 넘는 '맹목적인 힘'이라는 것을 내밀하게 느끼게도 한다.

한정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06-809 · 주부

우리네 삶의 쓸쓸함, 혹은 연대감

김갑수詩集 「세월의 거지」

「세월의 거지」에 실린 김갑수 시인의 예순 여섯 편의 시들은 마치 연락이 오래도록 끊겼던 마음의 빗으로부터 오랜 만에 전해 받은 한통의 엽서와도 같이 반갑게 단숨에 읽혀졌다.

요즘 대부분 젊은 시인들의 감수성이라는 게 그 서술이 너무 퍼해서 무섭고(그래서 지겹고) 아슬아슬 위태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는 결코 수다스럽지 않게 여러가지 삶의 이야기를 그의 시에 풀어 놓고 있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시절아 한잔 받아라” (「새벽 가까이」), “이렇게 나직이 었드려 살다가 벗들, 벗들 / 시절을 되짚어 일생의 빗물로 물어보리니 / 그때 우리 정말 아팠니?” (「원산동에서」).

몇몇 시를 보면 시인은 이미 청춘을 마감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이따위 콩깍묵 같은 적막”이라든지 “비온다, 올 것이 온다 / ...군중으로 말짱히 섞여 하늘을 보면 / 글썽울시다, 잘 모르겠습니다로 / 우두망찰 헛물이 계속 내린다”는 식의 통쾌한 표현으로 사람의 뒷통수를 치는 개구장이 소년의 면모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그저 살아가는 일의 쓸쓸함이나 고달픔만을 읊조리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서와 넋두리에 그치고 마는 시라면 읽고 나서 독자는 얼마나 기분이 쓸쓸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다른 골목을 인정하면서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의 심정 같은 것을 여러 편의 시들을 통해 나는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또한 단순한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하여 인간의 연대감을 손쉽게 없애 은밀히 강조하는 시인의 시들이 유행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날은 물렁하고 티눈은 아프고, 케케묵은 후회가 자욱한 미끄럽고 질척이는 사람의 길”을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한 시인의 존재.

“어쩌다 홀로 가장 낮은 땅에 버려져 / 심심함의 가렵고 습습한 실망이 쿨적대거든 / 마음에 들창 하나 빼꼼 열고 / 다만 결눈질로 흘기듯이 창밖을 볼 것 / 미웍하게 서로 물어뜯는 사랑의 풍경들아 / ...들창 밖으로 하늘의 윤곽이 간명히 보이는 기쁨 / 당신들은 그런 것 잘모르지요?” (「심심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의正義, 그런 정의가 무서운 정의다. 나머지 정의는 시에서 위안받는 길밖에 없다.

「세월의 거지」를 읽는 중 누군가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나는 마음 속으로 조그만 들창이 하나 빼꼼 소리를 내며 열리는 그런 기분을 맛보았다.

신혜옥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 · 회사원



(구) 동보기획

-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교정 · 제작 · 전산 · 수동사식
- 편집대행 · 영화, 비디오 홍보디자인 및 PR 기획
- 기업 · 관공서 · 학교 등의 홍보기획 및 디자인
- 상품, 상호 제목 등의 디자인 및 카피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 Q빌딩 3층
PHONE: 267-8058 / 278-5883 279-1323
FAX: 278-5883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 718-6260

단색 스캐너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 2度 분해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